

# S.Freud 꿈분석에 관한 연구동향 -국내학술지 중심-

권혜진\*, 신동열\*\*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 Research Trends on S.Freud Dream Analysis -Focused on Domestic Academic Journals-

Hye-Jin Kwon\*, Dong-Yeol Shi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Student\*,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꿈분석에 관련한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알아 보기 위함이고 꿈의 연구의 필요성과 꿈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은 프로이트의 꿈분석에 관한 연구 2019년부터 현재 2023년까지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서도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키워드 분류절차를 거쳐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분류범주는 정신분석, 국내학술지, 꿈분석, 꿈해석, 꿈분석 연구동향, 꿈 연구동향 등으로 검색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분석, 꿈분석, 국내학술지,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학술지 내 꿈분석에 관한 연구동향 연구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둘째, 꿈분석 키워드 중심 연구동향도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셋째, 꿈분석의 활용과 빈도도 적었다. 넷째, 꿈분석을 토대로 한 한국형 검사도구들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

**주제어** S.프로이트, 정신분석, 꿈분석, 꿈해석, 연구동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much research has been done on dream analysis based on S.Freud's psychoanalytic theory,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dream research and follow-up research on dream research.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analysis of domestic academic journals from 2019 to 2023, a study on S.Freud's dream analysis. Among them, the data were collected and organized through a keyword classification process from the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and the Korean Journal Citation Index (KCI). The classification categories were psychoanalysis, domestic academic journals, dream analysis, dream interpretation, dream analysis research trends, and dream research trends. In particular, psychoanalysis, dream analysis, domestic academic journals, and research trends were searched. The conclusion was drawn as follows. First, studies on research trends on dream analysis in domestic academic journals did not occupy a large proportion. Second, the ratio of research trends centered on dream analysis keywords was also significantly low. Third, the use and frequency of dream analysis was low. Fourth, research on Korean testing tools based on dream analysis is needed.

**Key words** S.Freud, Psychoanalysis, Dream analysis, Dream interpretation, Research trends

본 논문은 2023년 제1회 우수논문상, 고산 강현규 학술상 지원으로 게재되었음.

Received 19 Oct 2023 Revised 25 Oct 2023  
Accepted 26 Oct 2023  
Corresponding Author: Dong-Yeol Shin  
(Daehan Theological University)  
Email: counme3@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상담자는 내담자들의 자기보고 안에서 생생한 꿈의 경험들을 접할 기회가 많고 그 꿈이 지니는 의미는 그 사람의 다양한 경험속 무의식속 환경을 들여다보는 작업일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이론에서는 꿈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 꿈은 무의식적인 자신의 욕구와 바라는 점들을 표출하기에 사람이 원하는 소원이나 생각과 욕구들을 찾아내기 충분하고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꿈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꿈을 통해 그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로 인한 통찰이 일어남과 동시에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의식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발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꿈분석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전, 후로 알 수 있는 현재 사회문제로까지 여겨야 할 점들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9년 이전, 불안과 우울장애를 앓았던 사람들이 142만 5,533명이었는데 반면, 지난해는 175만 5,466명으로 무려 23.1%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분명 사회적으로 정신적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개인마다 자신을 탐색하고 통찰하는 과정을 통해 불안과 우울장애를 감소시켜 나아가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내담자가 꾸는 꿈은 내담자의 내면 속 세계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고, 각성시 바라보는 관점을 촉진하고 확장시킬 수 있으며, 또 내담자의 중심적인 역동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꿈의 이론에 근거한 꿈에 관한 연구들은 꿈으로부터 의미를 찾고 탐색하는 것과 더불어 그 꿈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기 위함이며 그 외 다방면으로도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천성문, 2003)[1].

본 연구자는 초석이 되는 프로이드의 꿈분석에 관한 꿈의 정의 및 해석을 토대로 하고있는 국내학술지 연구동향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프로이드의 꿈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무의식적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의 분석에 관련한 연구는 미비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과연 꿈과 관련된 연구와 논문들의 성과가 어떻게 현존하는지에 대하여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을 바탕으로 꿈분석에 관련한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고 꿈의 연구의 필요성과 그것을 통해서 꿈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기 위함이다.

## 2. 이론적 배경

프로이드는 꿈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 이유는 의식과 무의식간의 연결로 인간의 생각과 욕구를 찾아내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그것을 연결통로로 믿었기 때문이다. 억압되어져 있는 고통이나 희망들이 이미지가 되어 나의 소망으로 표출된다는 것, 그것이 꿈으로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래서 꿈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꿈을 ‘무의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보았다(심수명, 2018)[2]. 꿈은 흔하게 일상생활 중 사소하게, 많이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이미지들 중에서 어떤 비슷한 유사점을 띄는 것들로 표출된다(최영민, 2010, 91)[3]. 그는 현재의 문제점들을 과거에서부터 찾았고, 자신의 점검을 통해 무의식으로서 상징인 꿈이 가려지고 각색되어 표현되었다는 맥락에서 꿈을 이해한다(Corey, 천성문, 권성주, 김인규, 김창희, 김창대, 신성만, 이동훈, 허재흠, 옴김, 2019/윤영돈 2021)[4]/[5].

프로이드는 꿈을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을 점검하는 것을 계기로 더 나은 나를 알아차리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성격에 있어서 세 가지로 바라보았는데, 그것을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로 언급하였고, 그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조화롭고 통합적으로 잘 사용해나간다고 믿었다. 그리고 프로이드의 학설의 중심은 무의식이었다(S.프로이드: C. S. 홀: R. 오스본/설영환, 2014)[6]. 꿈을 원초아(id)의 충동과 더불어 욕구의 억압으로 인한 무의식적인 욕구

를 충족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였고,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 원인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나유리, 2017)[7].

프로이드는 여러 가지 꿈분석을 토대로 꿈에 나타나는 심리학적 의미를 확신했고 무의식적 과정을 꿈으로 선명하게 나타내고 또 깊이 억눌려있던 정신적 과정을 부각시키는 정신적 현상도 없다고 하였다. 꿈이야말로 무의식의 세계로 이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며, 과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였다. 프로이드의 이론에서는 어린 시절의 억압되었던 것, 원초아(id) 속에 갇혀있던 욕구, 잊혀지지 않는 체험 등을 가장 중요시여겼다. 그리고 잠재몽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꿈으로 이끌어 내는 일을 꿈의 작업이라고 하였다(S.프로이드: C. S 홀: R. 오스본/설명환, 2014)[8].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이론이라는 것은 의식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 아래 밑에서부터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의식적 심리를 통해 무의식적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꿈이라는 것은 나의 깊은 내면의 바닥에서부터 발현되는 억압된 나를 알게 하는 것이고, 자아방어기제에 관한 나의 억압된 힘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고, 자유연상을 통한 나의 무의식을 점검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의식과 무의식을 왕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되는 것이다.

꿈의 해석과정은 내담자의 꿈을 통해 잠재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질문기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데 잠재몽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억압된 유아기 본능 욕동, 주간 잔재, 야간감각자극, 1차 표징(응축, 전치)을 통해서 이차 교정(전의식)의 통찰이 일어나고, 마지막 의식(치료)을 통해서 그 꿈이 드러나는 것이다(최영민, 2010/신동열, 2023)[9]/[10].

### 3. 연구문제

첫째,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게재된 연도별 꿈분석에 관련한 국내연구동향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

둘째, 국내학술지 중심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게재된 키워드 꿈분석에 관련한 국내연구동향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

## 4. 연구방법

### 4.1 분석대상 국내학술지 선정과 수집 과정

본 연구에서는 꿈분석과 관련한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두 가지 정보서비스만을 이용하여 분석 대상 국내학술지들을 수집하였다. 1차적으로 ‘꿈분석’을 검색어로 하여 RISS에 게재된 국내학술지 32편과 KCI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일 검색어로 원문이 있는 자료 335편을 수집하였다. 2차 검색에서는 ‘꿈해석’, ‘꿈분석 연구동향’, ‘꿈 연구동향’으로 각각 검색어로 사용하였고 검색된 국내학술지 중에서 분석준거에 따른 대상 국내학술지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RISS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꿈분석, 꿈해석, 꿈 분석 연구동향, 꿈 연구동향으로 게재된 국내학술지가 총 179편, KCI에 위와 같은 검색어로 게재된 국내학술지는 총 696편이었다(김정숙, 2023)[11]. 키워드 검색에서 꿈, 정신분석, 꿈분석, 꿈해석 등의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국내학술지와 원문이 없는 국내학술지는 제외시켰고,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갔더라도 내용 확인 및 관련 내용을 찾기 어려운 것은 대상에서 제외시켰음을 밝힌다.

### 4.2 분류기준

연구대상 국내학술지를 분석하기 위해 동향연구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분석 준거 틀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주들을 정하였다. 일반적인 특성(국내학술지 게재연도, 국내학술지 주제별 키워드 분류-꿈분석, 꿈해석, 꿈 연구동향, 꿈분석 연구동향), 주 사용이론(프로이드 정신분석, 꿈분석), 연구방법(질적연구, 현상학, 내러티브, 근거이론, 사례연구), 연구변인(소논문, 국내학술지, KSI등제지)에 맞게 분류조사하였고, 특히,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분류 및 세부 내용을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도출하게 된 그래

프들과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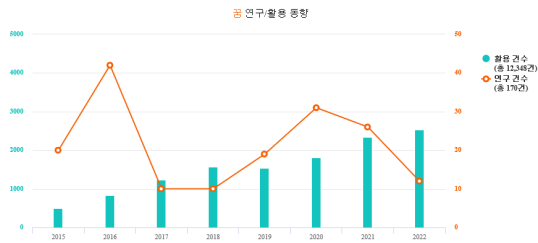
분류하는 과정은 타당도 및 신뢰도, 올바른 분류 체계를 위하여 연구자 2인(연구자 1인, 상담전공 교수 1인)이 함께 국내학술지를 찾아보고 선정하였으며 상담전공 교수 1인의 감수를 받아 기록하였다. 분류범주와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분류범주 및 세부내용

분류범주	세부내용
일반적 특성	국내학술지 게재 연도 국내학술지 주제별 키워드 분류
주 사용이론	프로이드(정신분석, 꿈분석)
연구방법	질적연구, 현상학, 내러티브, 근거이론, 사례연구
연구변인	소논문, 국내학술지, KSI등재지

## 5. 프로이드의 꿈분석에 관한 연구동향 연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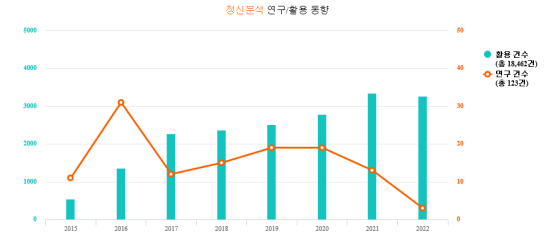
전체적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키워드 꿈, 정신분석, 꿈분석, 꿈해석으로 검색하여 아래와 관련한 자료를 색출할 수 있었다. 키워드로 한 분석들의 결과는 <그림 1, 2>와 같다.



[그림 1] 키워드 꿈에 관한 연구동향 통합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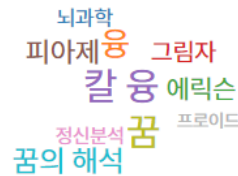
RISS 활용도 분석링크를 참고하여 꿈의 키워드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면, 꿈 연구 활용 동향에 편차가 있다. 그래프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는 크게 증가하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연구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이후 2019년부터 다시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이 또한 2021년 이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에는 ±19

건, 2020년에는 ±32건, 2021년에는 ±26건, 2022년에는 ±12건으로 예측된다(<그림 1> RISS 활용도 분석링크, 2023)[12]. 총 꿈 연구에 관련한 활용 동향의 건수는 총 12,348건이나 연구 건수는 총 170(오류편차범위 ±2)건만 확인된다.



[그림 2] 키워드 정신분석에 관한 연구동향 통합검색

RISS 활용도 분석링크를 참고하여 정신분석의 키워드와 관련된 현황 결과를 살펴보면, 이 역시 2016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2017년에는 연구가 감소되었다가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조금씩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석 꿈분석에 관련한 연구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2> RISS 활용도 분석링크, 2023)[13]. 정신분석 연구 활용 동향 그래프에서 총 연구 건수는 18,462건이나 그 중에서도 정신분석 연구 활용 동향은 123건(오류편차범위 ±10건)만 이루어졌다. 2019년 ±19건, 2020년 ±19건, 2021년 ±13건, 2022년 ±3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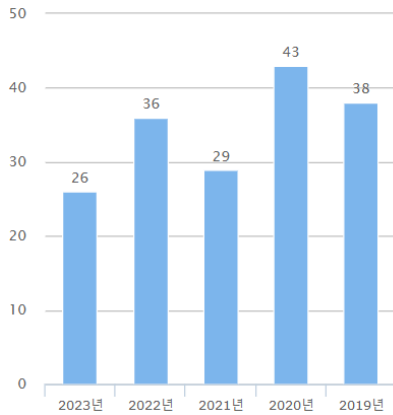


[그림 3] 키워드 프로이드 정신분석 꿈분석에 관한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언급된 단어들의 크기 양상을 알아보고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살펴볼 수 있는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기법은 텍스트 사용 빈도가 많은 단어들을 비례적으로 크게 표시하여 비정형 텍스트가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시각적 이해에 유용하다(<그림 3> RISS 활용도 분석링크, 2023/최종산, 2017)[14]/[15].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관어 분석 결과는 꿈의 해석, 꿈, 정신분석, 프로이드, 뇌과학 등의 키워드가 드러났다.

연도별 논문 수



[그림 4]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시기별 꿈분석에 관련한 국내연구동향 그래프

<그림 4> 역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논문 수에 관련한 그래프를 도출한 것이며, 가장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때는 2020년 때이고, 2023년 현재에 가장 연구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그림 4> KCI 활용도 분석링크, 2023)[16].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8편, 2020년 ±43편, 2021년 ±29편, 2022년 ±36편, 2023년 ±26편으로(오류편차범위존제) 2020년에 꿈분석에 관련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때의 사회, 심리적 상황은 코로나 19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던 때이다.

## 6. 결론 및 제언

S.Freud 꿈분석에 관한 연구동향 -국내학술지 중심-을 파악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두

가지 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게재된 연도별 꿈분석에 관련한 국내연구동향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에 관련하여 172~179편(오류편차범위 ±7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분야와 여러 편의 연구들에서도 꿈분석은 개인 및 내담자의 탐색에서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정의와 근거를 둔 국내학술지들이 발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의 비중은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내학술지 중심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게재된 키워드 꿈분석에 관련한 국내연구동향은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가?에 관련하여 꿈분석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국내학술지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들을 동일하게 하여 살펴보았을 때, 연구자가 선정한 꿈분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는 10~24편(오류편차범위 ±14편) 안에 추려졌다. 심리학자들이 개인 및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꿈을 들여다보는 꿈분석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토대로 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그것 역시 비율이 현저히 낮았음을 알 수 있기에 꿈을 소재로 분석하는 것에 대한 더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을 위한 향후 연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분야의 심리학자들은 꿈은 무의식을 여는 길이자 탐색하는 좋은 기술적 방법이라 정의함에도 불구하고 꿈분석에 관련한 활용의 빈도와 발전은 그 비중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나타냈고 꿈분석에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현실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국내 검사 도구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꿈분석과 관련된 키워드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여 꿈분석 연구동향에 대한 결과들을 도출하였으나 그 자료를 찾는 관점 및 키워드 설정에 따라 결과 해석 및 그에 대한 범주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겠다. 또한, 연구 결과를 알아보기 위한 자료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분류 범

주도 그 범위가 다양하지 못하고 현저히 좁게 측정되었기에 이 과정을 일반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검증이 더 필요하고, 자료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분류 범주도 좀 더 다양하게 넓혀 데이터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있어 여러 학자들의 꿈과 관련된 이론들을 적용한 다양한 개인 및 집단 사례를 통한 결과 분석 자료 통계 뿐 아니라 꿈분석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할 수 있는 연구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형 꿈분석 검사도구의 개발, 더 나아가 많은 연구 및 검증을 통해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References

- [1] 천성문(2003). 정신역동적상담에서 꿈의 내용분석을 통한 상담효과 분석: 경성대학교 교육학과 상담학 연구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03. 4(4), 699-712.
- [2] 심수명(2018).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본 정신역동상담 개정 보증판 262쪽. DSU: 도서출판다세움.
- [3] 최영민(2010).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쓴 정신분석 이론』. 서울: 학지사.
- [4] Corey, G., 천성문, 권성주, 김인규, 김장희, 김창대, 신성만, 이동훈, 허재홍, 율김(2019).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Cengage.
- [5] 윤영돈(2021). 정신분석학과 분석심리학의 소통을 통한 자기실현에 이르는 꿈 분석.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2021. 15(2), 189-200.
- [6] S.프로이트: C. S 홀: R. 오스본/설영환 율김(2014). 『프로이트 심리학 해설』. 서울: 선영사.
- [7] 나유리(2017). 꿈 분석을 통한 자기이해 사례연구. 연극예술치료연구(Journal of Drama Art Therapy) (7), 207-241.
- [8] S.프로이트: C. S 홀: R. 오스본/설영환 율김(2014). 『프로이트 심리학 해설』. 서울: 선영사, 331-335.
- [9] 최영민(2010). [대상관계이론을 중심으로 쉽게 쓴 정신분석이론]. 서울: 학지사.
- [10] 신동열(2023). 해석의 초급과정. 상담심리치료학회 부설한국정신분석꿈해석연구소.

- [11] 김정숙, 홍상욱(2023).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에 관한 연구동향-국내학술지 중심-. 산업진흥연구, 8(2), 141-148.
- [12] RISS 활용도 분석 링크 <그림 1> <http://www.riss.kr/analytics/analyticsInfo.do>
- [13] RISS 활용도 분석 링크 <그림 2> <http://www.riss.kr/analytics/analyticsInfo.do>
- [14] RISS 활용도 분석 링크 <그림 3> <http://www.riss.kr/analytics/analyticsInfo.do>
- [15] 최종산(2017).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외국인의 한식에 대한 인식 분석”, 예술 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 427-437.
- [16] KCI 검색 결과 분석 링크 <그림 4>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CitaReportWithArticles.kci>

## 권혜진 (Kwon, Hye-Jin)



- 2012년 3월: 일본 고베예술공과대학 대학원 박사수료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 박사과정
- 관심분야: 상담심리, 아동·청소년 상담, 성인상담, 정신역동꿈분석 등
- E-Mail: iltjj@naver.com

## 신동열 (Shin, Dong-Yeol)



- 2010년 2월: 건신대학원 대학교 철학 박사(상담심리학) 졸업
- 현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 교수
- 관심분야: 상담심리, 아동·청소년 상담, 가족상담, 정신역동꿈분석 등
- E-Mail: counme3@naver.com